

# 편견 속에서 부조리를 마주하다

오현재 : 이름

202510895 : 학번

이 세상은 편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면, 죽음으로써 편해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지프 신화』의 저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이러한 편견에 결코 반대한다. 카뮈는 인간의 삶이 그 어떤 절망적이고 무의미함에서도 살아갈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뮈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철학자로, 『이방인』, 『페스트』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고독과 부조리를 표현해왔다. 그러한 그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며 사유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시지프 신화』이다.

이 책은 알베르 카뮈가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에세이로, 책은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카뮈는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함과 무의미함과 같은 것들을 ‘부조리’라고 부르며, 삶의 부조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피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부조리를 ‘부조리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조건이다.’라고 주장하며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세라고 말한다.

이후 카뮈는 돈 후안, 배우, 정복자, 예술가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각자가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며 말한다. 그들은 절대적인 구원이나 희망을 믿지 않지만, 순간의 행동과 열정 속에서 삶을 긍정한다고 말이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자 책 제목에도 나오는 시지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시지프는 신에게 벌을 받아, 끝없이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진다. 이러한 시지프를 보면 그저 끝없는 형벌에 갇힌 것 처럼 보이지만, 카뮈는 시지프가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카뮈는 그를 보며 부조리의 인식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카뮈는 결국 책의 마지막에 “행복한 시지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한다.

카뮈는 이 책에서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 부조리를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았을 때 인간은 그것을 부조리하게 느낄 것이다. 만약 모두가 그 편견에

간혀 “인간은 날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면, 라이트 형제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편견 속에서 부조리가 생기고, 그 부조리에 갇혀 살아간다면 인간은 결코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처럼 이러한 편견을 깨고 부조리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편견들은 인간의 알록달록한 미래를 까맣게 덮어버리는 행위이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 생각 속에서 계속되는 부조리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두가 각자의 강점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을 또다시 부조리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깨야 한다. 혹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방향의 옳은 편견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견은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편견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며 원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알록달록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는다.

이 밖에도 카뮈는 시지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그는 불행해 보일 수도 있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부조리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부조리를 편견에 비유했듯이, 편견 또한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편견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라이트 형제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인간은 날 수 없다”는 편견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라이트 형제는 이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인간이 스스로 날 수 없다면, 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비행기를 발명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늘을 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이처럼 편견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끝없는 편견과 부조리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편견과 부조리는 결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시련이자 과제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벽이자 문인 것이다. 결국 시지프스가 끝없는 돌을 밀어 올리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듯, 우리 또한 편견과 부조리 속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한계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며 진정한 '행복한 시지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